

2020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위 원 장	학 교 장
회 의 록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18:00 ○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학교본부 2층)			
○ 출석위원(6명) : ○○○, ○○○, ○○○, ○○○, ○○○, ○○○ ○ 불참위원(5명) : ○○○, ○○○, ○○○, ○○○, ○○○ ○ 참석교직원(8명) : ○○○, ○○○, ○○○, ○○○, ○○○, ○○○, ○○○, ○○○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보고사항          5. 위원장 개의선언 6. 안전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0학년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 3.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4.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 심의(안)			
간사 (○○○)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5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명 위원님 중, 5분을 제외한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충족 요인인 여섯분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승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① 지난주에 신입생 모집이 끝났습니다. 모집인원이 234명인데 응시인원이 421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약 1.8:1인데요, 경쟁률이 높아지고 아이들 학업성적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② 몇칠전, 실장님이 오셔서 “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셨습니다. ③ 중기부 장관님께서 프랑스에 다쏘시스템이 있는데, 아이들 수업활동에 보면 3D모델링하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 다쏘시스템과 구미전자공고, 우리학교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학습체제로 넘어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카티아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100명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장 (○○○)	그걸 사용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중기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	다음은 ○○○ 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11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간사께서는 지난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는 총 4개의 의안이 있었습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안) (제2의안) 2020학년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안) (제3의안)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 수정(안) (제4의안)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사항(안) 모두 심의 의결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금회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의안) 2021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 (제3의안)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제4의안)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심의(안)입니다.  순서는 제2의안, 제3의안, 제4의안, 제1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2의안 2021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lt;제2의안, 2021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gt;</b></p>	
제안자 (○○○)	안녕하세요? 교과서 담당 ○○○입니다. 2021학년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과용도서를 선정을 해야합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교과서가 새로 바뀌는 바람에 2018년도 1학년부터 교과서를 새로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시행령 제55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학교교육과 관련 공문등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3학년 교과서를 총 27종을 배우는데, 그중 내년에는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교과서 선정을 하였는데, 한국어서 검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때 문제(있어) 내년부터는 새로 완성되어진 교과서로 진행하구요.

제안자 (○○○)	<p>인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미술창작, 전자기계이론, 전기설비,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인이상의 선생님들로부터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검토도서 선정기준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지금 15권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표가 총15장이 되다 보니(내용 많아) 선생님들께서 취합한 점수를 검토도서 선정기준 평가 총괄표를 다음장에 첨부 하였습니다.</p> <p>담당 대표자가 추천의견서를 작성하여서 교감선생님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절차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의를 해주시고, 학운위가 끝나고 나면 학교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게 됩니다.</p> <p>그래서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사(비상교육), 미술창작(주, 천재교과서), 전자기계이론(서울교과서), 전기설비(성안당), 성공적인 직업생활(주, 천재교과서)를 저희가 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p>
학교장 (○○○)	<p>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가 있는데,</p> <p>①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 저작권이 있고, ②검정교과서는 일반 출판사에서 집필하되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교과서입니다. ③인정교과서는 일반출판사에서 집필하되 심의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p>
부위원장 (○○○)	<p>평가총괄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출판사마다 편차가 많게는 10점 차이가 나는데 점수가 선생님의 사견이잖아요. 추천의견서도 다 사견이잖아요.</p> <p>여기서 우리가 교과를 바꾸고 이런것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p>
제안자 (○○○)	<p>변동사항으로는 만약에 위원님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따로 교과서 선정협의안 대표자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이유를 설명드리려야 하는데,</p> <p>저희가 교과서 선정을 할 때 1인의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인 이상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관련된 교감선생님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잘 못 책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p>
위원 (○○○)	<p>선생님들이 알아서 잘~~</p>
위원장 (○○○)	<p>선생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크게 절차상 타당하면 통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나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가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p> <p>(의사봉 3타)</p> <p>제3의안,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3의안,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p>

제안자 (○○○)	<p>안녕하십니까? 현장체험학습 담당 ○○○ 입니다.</p> <p>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제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제안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심신수련 등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관련근거는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p> <p>추진내용은 실시예정일은 2021년 5월 11일~14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예상경비는 학생 1인당 약 500,000원 경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p> <p>그 중 300,000원은 교육청 지원이며, 수익자 부담으로 약200,000원 이하의 부담이 있을 예정인데,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해야될 금액은 200,000원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p> <p>운영방법은 업체선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며, 제주도 자연지형 탐방, 체험활동, 한라산 등반, 다양한 공연관람 등 학생들이 최대한 만족할수 있는 코스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입찰 및 계약방법으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품질과 가격평가에 의한 공개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통, 숙박, 식사,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총액입찰합니다..</p> <p>낙찰자 결정은 활성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격을 개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p> <p>이 내용과 관련하여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p> <p>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추진현황을 보시면, 현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p> <p>기간은 3박 4일(99%), 2박 3일(1%) 나왔으며, 장소는 제주도(56%), 경인지역(30%), 기타 해외나 경상도 지역(14%)가 나온 상황입니다.</p> <p>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 99%의 학생이 3박 4일을 원하고, 장소는 제주도(56%)로 학생들의 선호 경향이 가장 큰 지역이었습니다.</p> <p>이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경인지역이 조금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코로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제주도가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다소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주도로 현장체험학습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p> <p>또, 학생들의 선호 경향을 보면 제주도에서 체험할수 있는 익스트림이나 레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기존에 방문하는 체험활동 보다는 참신한 체험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코스를 선정할 계획입니다.</p>
--------------	--

제안자 (○○○)	<p>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1학년도 22학년도 전체 학생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5월 11일~1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p> <p>이동교통편을 말씀드리면, 출발은 전세버스와 항공기 이용이고, 귀교는 항공기와 전세버스 이용 예정입니다.</p> <p>코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스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p> <p>1일: 퍼시픽랜드(요트체험, 제트보트 체험) 2일: 한라산 등반, 3일: 상호원(수목원), 루지체험(무동력 카트체험), 우도 방문, 4일: 4.3공원(인권교육 기회), 넥슨컴퓨터박물관(컴퓨터의 역사, 코딩체험 등), 자연사박물관(제주도 역사탐방) 예정입니다.</p> <p>학생 1인당 산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항공요금, 차량비, 입장료, 숙박비, 여행자 보험, 야간경비, 산악가이드 등 소요액 대비 1인당 금액 498,392원 정도인데, 지금 할인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라 실제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p>
위원장 (○○○)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부위원장 (○○○)	혹시 올해 못간 2학년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건지 교장 선생님이란 상의가 되어 있나요?
학교장 (○○○)	<p>이 건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학교에서 명시이월 해서 현재 2학년이 내년에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2학년이 제주도 가기를 원했으나, 내년에 2개 학년 26개반이 제주도 가는 것은 학교차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p> <p>왜냐면 버스만 해도 몇 대 예요. 그래서 3학년 건은 여기에 못올린거예요. 2월달쯤에 학운위 안건으로 올릴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큰 틀에서는 3학년 아이들이 300,000원 내에서(교육청 지원)그 안에서 해결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들어요.</p> <p>아이들에게 더 건지 않고 그러면 되면, 아이들이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2박 3일이 맞을지, 3박 4일이 맞을지, 저희의 예측은 2박 3일정도 산업체 체험까지 겸해서 하는게 적당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위원 (○○○)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장 (○○○)	<p>시기는 교육과정 운영상 같이 같이 해야죠? 정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전체학년이 같이 움직여야 교육과정 운영상 편리성이 있거든요.</p> <p>한 학년 13개반이 한꺼번에 가는것은 교육청에서는 지양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가는게 맞는 건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2월달에 학운위에 올려서 심의 받으려고 합니다.</p> <p>가는건 결정이 되었습니다.</p>
위원 (○○○)	2021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안자 (○○○)	비행기 예약편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위원 (○○○)	대부분의 학교들이 5월이면 성숙기 이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회의때 교장선생님이 학부모 위원들에게 약속한 3학년 학생도 내년에 같이 갈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제안자 (○○○)	네
위원 (○○○)	여기에 안올렸다는 얘기는 제주도는 이미 제외 했다는 얘기네요.
제안자 (○○○)	지금 논의중인 상태이구요. 3학년이 가야하는 기업체 탐방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위원 (○○○)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학부모님들의 조사가 있었는지?
제안자 (○○○)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	<p>그러면 조사된 것 없이 3학년 학생은 제주도 안가는 걸로 결정을 하신거예요?</p> <p>이번에 논의안되면 항공권 때문에 내년에 간다 하더라도 시기를 달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p> <p>그래서 제가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 3학년 학생이 제주도로 많은 학생들이 원하면 그걸 강제로 저희가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p>
학교장 (○○○)	<p>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가 전부 오픈해서 논의는 못해봤는데, 내부적으로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2개 학년이 전체를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어요.</p> <p>그러면 2학년이 올해 못간 것을 내년에 가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는 3학년이 산업체 체험을 편성해서 가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p> <p>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돈을 건지 말고 300,000원 내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큰 틀에서는 물론 그 아이들에게 희망조사를 하면 아마 제주도로 가자고 할 겁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위원 (○○○)	<p>현재 2학년 학생들이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을 못가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못가게 된거 같아요.</p> <p>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 위원님하고 아쉬워 하시면서 그래도 가볼수 있는 방법을 만들 어보자 했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2학년, 3학년이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p> <p>그랬으면 적어도 3학년 학생들에게도 사전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2, 3학년이 동시에 가는 것은 어려우니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회의를 붙여서 뭔가 학생들이 의견을 내놓을수 있도록 방안을 물었어야지 되지 않나, 그게 민주적이지 않습니까?</p>

위원 (○○○)	<p>지난번에 논의했던게 조위원장님 지적을 하셨지만 왜? 학생들 의견, 학부모 의견 다 중요한데 학생들에게는 안몰아 보았냐는게 문제가 됐었잖아요?</p> <p>그러면 이번같은 경우 만약 여기서 의결이 되면 3학년은 사실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가자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시기를 맞추다면 항공권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학교 1개 학년만 움직여도 전세기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p>
학교장 (○○○)	<p>그 부분도 고려해본게 2개 학년이 갈려면 비행기를 몇 대 띄워야 되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달리해서 가면 되요.</p> <p>어떻게 보면 학교편의주의 일수 있지만, 또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동시에 행사를 해야 운영하는게 유리하거든요.</p> <p>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고민거리가 2개 학년이 가는 것으로 전제했을때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2, 3학년 전체가 갈려면, 사실 물리적으로 3학년에게는 미안하지만,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지역을 어느 한 학년이 양보를 해야 한다면, 순리적으로 보면 2학년이 가야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p> <p>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수렴 거칠거예요. 충분히 학생들에게 이런상황을 설명을 반드시 할 거구요.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어느학년이 가게되든 1개 학년 비행기표는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포커스를 2학년에 맞춰놓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p>
위원 (○○○)	지난 운영위 때, 3학년 학생들도, 2학년학생들과 같이하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학교장 (○○○)	네
위원 (○○○)	<p>어쨌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라는게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유가 자비부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교시절의 소중한 추억거리가 됩니다.</p> <p>그러면 '애초에 니네는 제주도로 가지말고'로 전제를 했다면 학생들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p> <p>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학급회의를 통해서 그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도 하고 또 상황이 이렇다는걸 충분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이 왜 없었냐는 거죠?</p> <p>지금 지난번에 ○○○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조사가 없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학년 학생은 같은 시기에 가면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걸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학생들만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또 왜 우리는 제주도 안가요?</p> <p>가고싶다고 했을 때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지 않나? 그런 말이죠.</p>

학교장 (○○○)	<p>제가 한번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제주도를 가야겠다고 한다면,</p> <p>그 방안은 제가 마련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 학생들은 9월달에 가든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p>
위원 (○○○)	<p>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학교가 3학년은 산업체도 가고, 등산도 하고 2박 3일로 활동을 했었어요. 2학년들은 3박 4일 제주도 수학여행 가고, 1학년들은 해양 수련회를 갔다 오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어요.</p> <p>그래서 아마 그런점이 있어서 의견수렴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시고~</p>
학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 (○○○)	<p>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코로나가 가라앉을 듯 하면서도 계속 확산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 창궐해서 갈수 없는 입장이라면 대안도 마련이 되어있어야지 않나요?</p> <p>예를들면 시기를 바꾼다던가? 지금 현재 근거를 보니까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라 되어 있어요. 사실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p> <p>그러면 2021년에 교육에 반영을 하긴 하지만 2020년도를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인데 A안만 있지, B안이 없어요. 그러면 B안으로 갔을때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까지 체험학습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p> <p>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냐면, 물론 오늘 통과 시킨것도 중요한 거고,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한들 상세한 프로세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심의를 받는 것인데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장체험 학습이 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p> <p>교장선생님 말씀대로 3학년들이 제주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3학년들은 지역을 달리해서 가능 방안도 있구요. 오늘 심의를 하되 그 부분은 좀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p>
제안자 (○○○)	네 알겠습니다.
위원 (○○○)	제주도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 그 시기에 3학년들 3박 4일 가능해요.
위원 (○○○)	<p>그러죠,</p> <p>근데 이제 원래는 3학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제주도는 중학교때도 많이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안 가본 서울 외곽지역 쪽도 많이 하는데,</p> <p>문제는 아이들에게 먼저 의견조사를 해서 그걸 정리해가는 과정 이게 사실 다르잖아요.</p>

학교장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 안해본 것은 아니예요. 어찌 됐건, 5월에 가는 것은 2개 학년이 동시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1개 학년 항공편이니깐 이것에 대해 심의를 해서 항공권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이 제주도로 가야한다면 후반기로 밀려가는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까지 논의를 했다면 3학년은 하반기에 또 실습나가야 하잖아요.  3학년이 먼저가고 2학년이 늦게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	현재 2학년 한 것은 항공권 때문에 이시기에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	항공권이 지금 항공사가 노는 비행기도 많은데....
위원 (○○○)	아니요, 5월에는 달라요. 모든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원 (○○○)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항공권을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자 (○○○)	따로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그렇려면, 오늘 심의를 받아서 예약을 하는 것이.....
위원장 (○○○)	그러면 오늘은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심의를 하고, 내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재량권을 줘서 다시 협의할수 있도록...
학교장 (○○○)	2월 학운위때 올리면?
위원장 (○○○)	2월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학교장 (○○○)	저희가 역산해서 2월달 학운위 할때는 남은 3학년이죠, 어떻게 할것인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3학년이 5월에 갈지, 2학년이 5월달에 갈지,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고, 항공권 확보차원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
위원장 (○○○)	지금말씀하신 대로 심의하는걸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	네

위원장 (○○○)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4의안,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심의안 제안설명 해주세요.
	<b>〈제4의안,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 심의(안)〉</b>
제안자 (○○○)	<p>안녕하세요? 저는 교복담당 교사 ○○○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p> <p>제안이유로는 교복공동구매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복 개별 구매에 따른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 절감,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입찰 및 계약 체결하기 위함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선정 위원회 결성 및 실시여부를 논의함으로써 공동구매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공동구매가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p> <p>관련근거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 권고가액 알림(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03.21.)입니다. 교복가격 상한제는 도교육청에서 교복값으로 300,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00원내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p> <p>주요내용은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실시여부,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가격 임금 방법, 그리고 학교교복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 심의,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장님과 교감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직원(3명), 학부모(4명), 학생(3명)해서 10명으로 학교교복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p> <p>거기에서 1차, 2차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색상 및 디자인도 다 뒀졌으면 합니다.</p> <p>현재, 학교교복소위원회 규정을 보면 위원장이신 ○○○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것은 학교교복소위원회 위원장이신 ○○○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p>
위원 (○○○)	<p>2번의 소위원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p> <p>담당선생님께서 위원을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이 있어서서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학생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소위원회를 결성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학부모 위원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1학년 대표분 2명, 2학년 대표분 1명, 저를 포함해서 4명 구성을 했었어요. 학생들은 2학년이 3명, 1학년 1명(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교감선생님, ○○○ 선생님하고 이렇게 10명이 참여를 했는데,</p> <p>9명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 뭐냐면, 현재 입고 있는 교복이 질이 안좋다. 그래서 입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다. 겨울옷 같은 경우는 옷감질이 안좋아 정정기 발생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고, 무겁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p>

위원 (○○○)	<p>하복의 경우 요즘 혹서기가 상당히 길어진 거의 한 6개월이 더운 시기인데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와이셔츠나 긴바지가 옷감도 안좋은데 다가 그옷을 입고 운동도 한번 하면 와이셔츠를 입고 할수도 없고, 벗고 할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은 좀 편한 복장으로 바뀌겠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p> <p>그러면 어떤식으로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요즘 추세가 상의복은 와이셔츠 타입이 아니고 투버튼이나 쓰리버튼식의 일반 트셔츠 타입하고,</p> <p>바지같은 경우도 반바지를 허용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대신에 반바지와 긴바지를 병행을 하자. 반바지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투버튼의 셔츠와 반바지와 긴바지를 하복으로 변경을 하는 방향을 구상을 해봤습니다.</p> <p>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교복업체를 선정할 할 때, 재질부분을 소위원회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양질의 옷감으로 된 옷을 선정해야죠. 그런식으로 변화를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p> <p>소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진행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다시 한번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세밀한 부분을 가져가고 동복에 대한 부분은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에 있는 상태니까 재질(옷감) 부분만 잡아주는걸로 하고,</p> <p>하복만 아이들이 좀 편한 복장으로 바뀔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자. 얘기를 해봤습니다.</p>
위원장 (○○○)	지금 공동구매하는게 많이 늦었죠? 월래 통상적으로 보면 10월중에 끝나야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이나 설명회때 오면 뭔가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늦었어요.
제안자 (○○○)	네
위원장 (○○○)	그럼, 이렇게 늦어도 신입생들이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공백은 충분한가요?
제안자 (○○○)	지금 저희가 입찰2달, 제작2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12월중에만 끝나면..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복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그대로 가더라도 질감을 올리자면은 신입생이 3월에 오면 지금 그때 맞춰야 되는거죠. 그죠?
제안자 (○○○)	3월 1일에 맞춰야죠.
위원장 (○○○)	그렇죠. 그럼 지금 빨리 공동구매가 선정해 놓고 소위원회서 질감을 어떤걸로 할것이나 하는데 그 기간이 되냐는 거죠?
제안자 (○○○)	지금 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저는 지금 너무 늦어서..
학교장 (○○○)	위원장님 만에 하나, 교복이 3월 1일에 안맞춰지면 1달정도 아이들 자유복 입고, 4월부터 입혀도...

위원장 (○○○)	<p>시기상으로 염려가 돼서 여쭙본거구요.</p> <p>교복은 만 2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민주적으로 의견수렴 잘 됐는가? 학부모의 견이 반영이 됐는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까 교복소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복은 디자인은 그대로, 질감을 올리고, 제 생각에 하복은 반팔 티셔츠하고 반바지하고 얘기를 하는데,</p> <p>이 학교 동문으로서 동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 있는 하복은 정복이 아니다 싶어요. 그것을 입고 면접도 갈수 있는 것이고, 하복자체는 질감을 다시 한번 개선한다던가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공동구매를 동·하복 포함해서 15~19만원대가 되고 100,000원이 남지 않습니까?</p> <p>우리가 어차피 생활복이 있잖아요. 그 생활복을 여기에 준하는 걸로 해서 대체 2가지를 겸용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p>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생활복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는 한데, 적은 금액이고,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은 여력이 없나보니까?
위원장 (○○○)	<p>교복은 학교의 정책에 따라, 혹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교복이 바뀐다하면 당연히 바뀌어야지요.</p> <p>지금까지 40여년을 입어왔던 교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게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교복은 그대로 가고, 생활복에서 학생들이 정복해서 입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p>
위원 (○○○)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위원장 (○○○)	조건은 300,000원 내에서, 어차피 생활복도 지금까지 300,000원 이내에서 했던거잖아요.
위원 (○○○)	생활복 예산은 실습비에서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원장 (○○○)	<p>단체 구매를 하게 되면 200,000원 이내에서 해결이 되는거지 않습니까?</p> <p>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00,000원이기 때문에 100,000원이 남지 않습니까?</p>
제안자 (○○○)	네
위원장 (○○○)	그럼 100,000원 범위내에서 현 교복하고, 이 둘을 넣고 하면 예산이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안자 (○○○)	지금까지는 입찰이 180,000원 선에서 끝나도 바지하나 더하고 해서 학생들이 거의 300,000원 맞춰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위원 (○○○)	교복을 최저 입찰가로 하니까, 품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학교에서 혼용물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최저 입찰가로 하지말고 적정선에서 해 조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갈수 있어요. 지금 동복이 너무 무겁다고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학교장 (○○○)	가격이 싸니까?
위원장 (○○○)	동복은 질감을 올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복을 바꾸자. 뒤에 의견을 보면 근소한 차이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고, 교사들의 의견은 바꾸자는 의견이 26%, 안바꾸 자는 의견이 73%예요. 그리고 1, 2학년 재학생들은 차기 '21년도에 들어오는 학생옷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옷이잖아요. 동문들의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그쪽에서도 그냥 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봤을 때는 의견수렴 자체가 학교에서 성의껏 충분히 했겠지만 너무 차이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장 (○○○)	저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아이들이 와이셔츠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단추가 떨어지면 끼워서, 꼬매고 단추를 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참여를 해서 의견이 집중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한다는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2가지 길로 가면 되지 않겠나?
위원 (○○○)	그래서 나온 기준이 하복을 유지하지만 반바지, 반팔티도 교복처럼 허용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위원 (○○○)	제가 ○○에서 겪었던 일인데, 교복을 바꾸기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정도 됐을 겁니다. 문제는 교복업자들이 학교로 와서 시위를 하더라구요. 우리 교복 다 만들어놨는데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예고를 해야 한다.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교복을 만들어놓은 업체들이 있어요. 또 학생들 중에서는 브랜드로 사는 아이들도 있구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기존에 디자인을 바꾸려면 기존 디자인을 올해는 인정을 해주고 말씀하신대로 와이셔츠는 그대로 하고 질을 높이고, 티를 바꿔서 혼 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모델, 구모델 1년동안 병행을 해조야 업자들도 소진을 하고 안그러면 학교가 힘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이셔츠에 현재 꺼에 문제가 있으면 질을 높이고, 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바지도 현재 바지에서 질을 좀 높이고, 반바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혼 용을 해서 어쨌든 다 갖추니까요. 1년은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쯤에 심의를 다시해서 이 모델로 확정을 한다. 업체들 반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어차피 반바지, 반팔티는 업체 반발이 없어요.
위원 (○○○)	그쵸, 근데 올해 급격하게 바꾸게 되면 틀림없이...
학교장 (○○○)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입기 한 4개월 전에, 동복을 안 바꾸면 동복은 3월 이잖아요. 하복은 6월 있다가라고 치면, 하복은 사실 5~6월에 입잖아요. 근데 문제가 동-하복하고 동시에 입찰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할수 없잖아요. 그럼, 기존 것 하고, 반바지하고 티셔츠 있잖아요. 그것을 추가해서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입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300,000원이 넘어 가면 학부모님도 부담이 되잖아요.
위원 (○○○)	생활복 비용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활복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교복 선택하는 쪽으로 넘어올 수 있나요?
교사 (○○○)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학생들 생활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복 실습복이에요. 그래서 실습전용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학생들 체육활동이나 실습도 기계가공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되는 것이고, 교실안에서 가공이 아닌 실습을 할 때만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교복쪽에서의 전용은 불가합니다.
위원 (○○○)	교복이 공동구매가 사실 어려움이 많은게요, 원래 목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옷을 입 히려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민을 많이해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그렇고 근데 업체쪽에서 보면 자기네몹을 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방을 놓는경우가 있어요. 교복공동구매를 해서 300,000원에 맞췄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차피 그사람들은 올해 소진 못할 것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반값에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반값에 주는데 공동구매 할래? 그래서 흔들려 버리면 학교가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안 준다고 예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했었잖아요. 학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지금 현재 2벌씩을 하는데 하나는 이걸로 해서 일부 부담을 시키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동구매 한것과 브랜드 구매것을 비교를 해요. 브랜드 구매한 것이 반값인데, 품질이 왜 이러지 해서 공동구매한분들이 난처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위원 (○○○)	소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문제삼는 것이 품질이 너무 나쁘다. 애들에게 입힐수가 없다.
학교장 (○○○)	최저가로 하니까?

위원 (○○○)	<p>그래서 최저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자문을 받아 품질은 기지로 정해주고, 업체를 선정할때는 저희가 추산한 가격을 제시를 하고, 300,000원인데 290,000원으로 해요.</p> <p>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응찰한 업체중에서 전.후든, 좌.후든 가장 근접한데를 몇 개 뽑아 그것을 적정가를 내요. 그럼 그 평균가에 가장 근접한데로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가 장난도 못치고 그 가격이 비슷하게 되지요.</p> <p>그니까 기준가를 제시하고 6개업체가 응찰하면 거기서 3개를 뽑아서 거기서 평균을 내고, 거기서 평균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는 이미 제시를 했잖아요.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p> <p>근데 가격을 싼업체로 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심의를 해서 가장 좋은업체로 선정을 하면 업체들이 장난을 치죠. 그래서 그런일이 있어서 하여튼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올해 한해 만큼은 혼용을 해서 결국 시달리는 것은 교장, 교감선생님이거든요.</p>
부위원장 (○○○)	디자인은 동일모델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업체들한테 재질 개선을 해주라하면, 원소리나 우리는 이렇게 몽땅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러니까 동복을 미리 여름부터 만들어 놓을 거 아니예요? 업체가 느닷없이 만들수는 없잖아요.
위원 (○○○)	작년 제고품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질의 옷을 입어봤는데 불편하더라 스판올을 좀 높여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다 패기하고 새로 만들...
위원 (○○○)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꾸면 문제가 되죠?
부위원장 (○○○)	재질을 바꿔도 문제가 되죠?
위원 (○○○)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학교장 (○○○)	박위원님 말씀하신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건 행정적으로 볼 때 디자인을 바꾼게 아니라 품질의 옷감같은 것(재질만) 바꾼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	우리학교 동복의 스타일은 많은 학교에서 입어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늦다 보니까 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품질 부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질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 (○○○)	티셔츠와 반바지의 디자인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 (○○○)	애들한테 붙여놓고 스티커 붙이기 해야죠.
위원장 (○○○)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1, 2학년은 이웃이 해당이 없으니까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이 되겠냐? 그러니까 소위원들끼리
위원 (○○○)	함께 고려해주셔야 할 부분이, 현재 1, 2학년들도 본인이 원하면 자비로 구매를 해서 입을 수 있도록, 혼용을 같이 해주시면~~
위원 (○○○)	같이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입을 수 있도록 해야죠.
학교장 (○○○)	강제로 사게할 수는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죠?
위원	네
위원장 (○○○)	그러면, 추가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b>〈제1의안, 2020학년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b>	
제안자 (○○○)	<p>안녕하십니까? 경리부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예산구분 : 추경 2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예산액 : 8,836,722천원</li> <li>- 기정예산액 : 7,332,983천원</li> <li>- 비교증감 : 1,503,739천원, 증감율 20.5%</li> </ul> <p>- 이하 안건자료 낭독 -</p>
위원 (○○○)	얼마전, 학교 교실에 누수가 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학교는 시설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걸로 알아요. 이번에 교실 누수라든지, 기타 건물 누수에 대해서는 어느항목으로 지출이 되나요?
제안자 (○○○)	시설장비유지비 소규모 공사 부분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위원 (○○○)	그 예산은 충분한가요?
제안자 (○○○)	그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번에 3천 5백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	작년이나 가장 최근에 방수공사를 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됐으면 거기에서 커버가 되야하지 않나요. 우리학교 방수공사는 여러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자 (○○○)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방수공사는 대규모공사가 있어요. 대부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분, 부분 소규모 공사로 보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 (○○○)	제가 설명 드리면, 학교 건물이 많고, 오래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수공사 한번도 안한 곳이에요.  최근, 교실 누수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 문제가 뭐였냐면, 위에서 물을 타고 내려와 교실 2, 3, 4층이 전체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3개반 아이들 교실을 임시로 옮겼습니다.  업자분들에게 요청 해서 계속 알아보는데 못찾아서, 옥상에 올라가 파보니깐 위에는 물이 없는데 물탱크 배수관에서 물이 세는 것 같다 해서, 다음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 최종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확인하고, 애들 교실을 옮기자. 방수세는 곳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구요.
위원 (○○○)	지난번, 명장1관도 천장에 누수가 나서 보니 배관머리가 세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학교 학교회계 예산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교육청처럼 시설예산을 따로 갖고 있는게 아니라 통으로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이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기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따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안자 (○○○)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 비가 오면 세는 곳이 발생하여 그런 부분, 부분을 소규모 사업비로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구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그런데 그건 어려운 것 같고, 3개교를 돌아가면서 한번씩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	혹시, 내년에 우리학교가 학교회계예산 말구요?
학교장 (○○○)	내년에 우리차례예요.
제안자 (○○○)	네, 내년에 우리학교 시설보수 예산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	그런데, 방수는 세고 있을 때 방수처리를 해야지, 세는 현상이 안나타나는데 다 방수처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위원 (○○○)	학교 옥상의 경우, 위에서 새면 몇 년마다 기간을 정해놓고 방수공사를 하더라구요. 건물이 크니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정기적으로 안해주면 언젠가는 또 새죠.
제안자 (○○○)	지금 추경에는 없고, 내년 본예산과 학교 시설보수비 들어오는 예산을 봐 가지고 본예산 짤 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취업부 건물(화장실) 이용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에 대해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자 (○○○)	본예산 할 때, 시설비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수요를 받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갈려고 생각중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
위원 (○○○)	그런데 제일 어려움이 본관, 체육부예요.
제안자 (○○○)	네, 내년 본예산 수요에 반영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12p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올해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도에서 우리에게 준 예산..
학교장 (○○○)	2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학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돈을 안쫓아도 상관없는데, 2천만원 예산을 우리학교에 줬습니다.
위원장 (○○○)	국립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비용처리에는 관계없다.
학교장 (○○○)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기능경기대회 훈련할 때 사용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	우리는 도교육청의 산하가 아닌 별도 국립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가야하는게 아니냐?
학교장 (○○○)	예산은 별도로 오는데, 쓸때는 우리가 구분해서 쓰는 거죠, 나중에 쓰고난 다음에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 (○○○)	위원장님, 추경예산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벌써 11월이잖아요. 지난번 운영위때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한번도 못보고 갔어요.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협조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 12월에 예산을 짤 것 같아요.
학교장 (○○○)	운영위원회에 넘어갈때는 2월에 넘어가요.
위원 (○○○)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말씀들 드리면 늘 돈이 없대요. 근데 돈이 없긴 없더라구요. 학교 규모가 크다보니 쓸 곳은 많고 그래서 결국 2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돈을 더 많이 따오거나 또는 효용성이 큰 곳부터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짜는거는 금방 짜요. 옛날 있는 예산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줌으로써 학교에서 필요한데 더 많이..

학교장 (○○○)	돈이 없다는 얘기는 2가지예요.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놨는데 갑자기 학기중에 뭘 해야겠다 하면 돈이 없는..
위원 (○○○)	기능경기를 마치고 폐기할건 폐기하고 정리를 했어요. 3층실에 책상과 의자를 사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했었죠, 그 돈이 3~4백정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도 시급한 것이 있고, 덜 시급한 것이 있거든요. 수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원만하면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안자 (○○○)	3백만원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절대 움직일수 없는게 있어요. 업무추진비성 사업성 경비, 비품구입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 때문에 300만원 조차도 교감선생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위원 (○○○)	비품구입비가 액수로 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제안자 (○○○)	내역사업이 내려올 때 그 내역에서 10%이상 이런식으로 ..
위원장 (○○○)	조금 일찍 시작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예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면 내년도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겠나? 또 딱 날짜 맞춰서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 (○○○)	예산은 학교에서 짜는거예요. 예산 짤 때 협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짜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담당선생님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	어쨌든 학교에서 짜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교복도 그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딱 당해가지고 하니까, 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위원 (○○○)	아무튼, 교복은 늦게 시작했다는 것을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	추경예산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하시는 일에 전체 협력하겠습니다.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록자 총 무 부 ○ ○ ○	